

5 결원 충원을 위해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면 로스쿨 제도의 파탄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

2021학년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결과, 소규모 → 대규모 로스쿨로 편입할 경우, 하위 5개 소규모 로스쿨 중 4개 교는 재적학생이 사라지며, 1개 로스쿨은 정원 절반가량의 학생만이 재적하게 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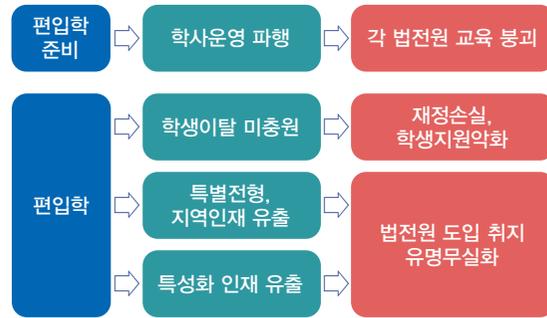


대학명	입학 정원	결원 (21학 실제) (①)	편입 전 재적인원 (②)	편입 인원 (③)	편입 후 재적인원 (④=②+③)	충원 여부
A대	150	1	149	1	150	○
B대	120	2	118	2	120	○
C대	120	4	116	4	120	○
D대	120	12	108	12	120	○
E대	120	12	108	12	120	○
F대	120	13	107	13	120	○
G대	120	16	104	16	120	○
H대	100	14	86	14	100	○
I대	100	13	87	13	100	○
J대	100	4	96	4	100	○
K대	80	5	75	5	80	○
L대	80	6	74	6	80	○
M대	70	5	65	5	70	○
N대	70	6	64	6	70	○
O대	60	3	57	3	60	○
P대	60	3	57	3	60	○
Q대	50	17	33	17	50	○
R대	50	10	40	10	50	○
S대	50	7	43	7	50	○
T대	50	5	45	5	50	○
U대	50	12	38	△9*	29	X
V대	40	4	36	△36*	0	X
W대	40	2	38	△38*	0	X
X대	40	2	38	△38*	0	X
Y대	40	3	37	△37*	0	X
합계	2000	181	1819	0	1819	

6 결원충원제도를 유지하면, 편입학 부작용 예방 및 로스쿨 운영이 정상화됩니다.

편입학 제도의 부작용

- 로스쿨법 제25조(편입학)에 따라 결원 발생 시 기존 로스쿨 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입학하게 됩니다.
- 편입학 제도가 운영될 경우



로스쿨 운영의 정상화

- 로스쿨법 시행령에서 결원충원제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합니다.



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 결원충원제도 유지 필요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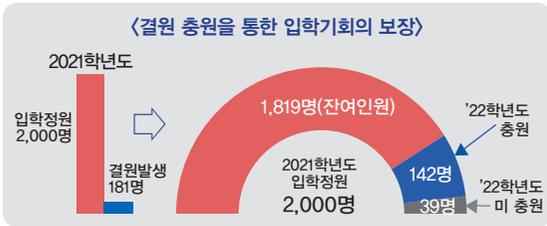
1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결원충원제도의 법 시행령 규정입니다.

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(로스쿨법) 시행령 제6조(로스쿨의 입학정원) 제3항 및 부칙 규정

- 로스쿨 신입생 미충원 및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, 입학정원의 10% 내에서 충원할 수 있음. 다만,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
- ※ (부칙연장) 1차 '10~'13학년도(4년), 2차 '14~'16학년도(3년), 3차 '17~'20학년도(4년), 4차 '21~'22학년도(2년)

2 로스쿨 결원충원제도는 교육기관의 로스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.

- 로스쿨 간 편입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 - 상위권 로스쿨로의 연쇄 이동에 의한 로스쿨 제도 황폐화 방지
-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입학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


■ 로스쿨의 재정손실을 예방하고, 교육기관 운영의 불안정이 해소됩니다.

- 결원 미충원 시 예상되는 전체 로스쿨의 연간 재정 손실액: 약 67억원 즉, 개별 로스쿨로 보면 연간 평균 2억 6,800만 원 재정손실이 방지됩니다.



■ 로스쿨 제도의 핵심인 특별전형, 지방인재 선발 제도 안착이 가능해집니다.

- 12년('09~'22) 동안 취약계층이 특별전형으로 1,958명이, 8년('15~'22) 동안 지방인재전형으로 1,346명이 입학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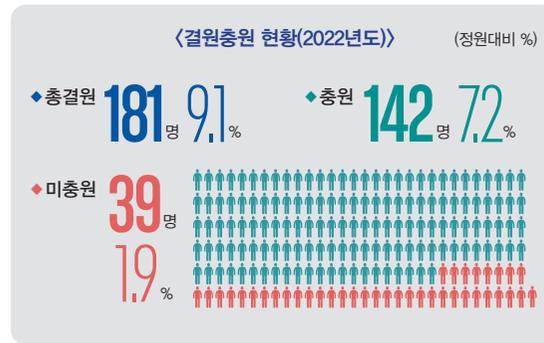
3 결원충원제도 시행 중에도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.

■ 대한변협 측은 결원충원제도 시행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하게 되어 변호사가 과다배출된다고 주장합니다.

-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결원이 발생하더라도, 각 로스쿨별 입학정원의 10% 범위 내에서만 선발합니다.
- 따라서 10% 초과 인원은 충원하지 않습니다.

● 2022년 결원충원 현황

- 미충원 인원 39명 발생 : 입학정원 2,000명의 약 2%



● 최근 5년간 결원충원 현황('18~'22)

- 실제로 최근 5년간 입학정원 10,000명 중 162명이 미충원되었습니다.

(단위: 명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합계	평균
*결원	124	183	167	147	181	802	160.4
충원	106	136	130	126	142	640	128
미충원	18	47	37	21	39	162	32.4

*전년도 발생 결원

2018년 이후로 최근 5년간 802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, 5년간의 총 입학정원인 10,000명 중 162명이 미충원되었습니다(1.62%).



4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숫자 증가원인이라는 변협의 주장은 틀렸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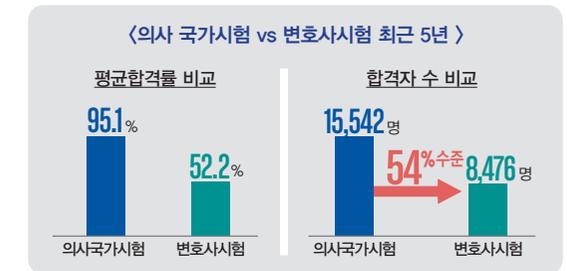
■ 대한변협 측은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숫자를 증가시켜 법률시장의 경쟁을 격화시키고, 개인 변호사에게 저가 수입 압박,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곤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.

● 사실과 다릅니다.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결원충원 인원수와 상관없습니다.

- 로스쿨 설립 취지,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논의로 결정됩니다.
-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현재까지 총 응시자 27,580명 대비 합격자는 16,049명(58%) 수준으로 결원충원제도가 변호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● 타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자격시험인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

- 매년 응시자 대비 95%가 합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, 대한변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



※의대는 결원시 의학과 아닌 타학과에서 외부편입학이 가능함

〈최근 5년 의사국가시험·변호사시험 응시자·합격자·합격률 비교〉 (단위: 명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합계	
의사 국가 시험	응시자	3,373	3,307	3,210	*3,214	6,043	*16,345
	합격자	3,204	3,115	3,025	*412	5,786	*15,542
	합격률	94.99%	94.19%	94.24%	*12.82%	95.75%	*95.08%
변호사 시험	응시자	3,240	3,330	3,316	3,156	3,197	16,239
	합격자	1,599	1,691	1,768	1,706	1,712	8,476
	합격률	49.35%	50.78%	53.32%	54.06%	53.55%	52.20%

*공공의대 문제로 응시자들이 시험을 보지 못하여 2021년 수치는 응시자 수 제외한 합격자 수만 반영(2022년에 반영됨)

- 대한변협은 법조인의 직역 수호·확대 및 유사직역 통폐합, 진출영역 확대 등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